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2년 12월 뉴스레터 vol. 60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채우고 비우고 노인 한 분을 돌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알쓸신장 임종 전 나흘, 아름다운 이별 방법
공간채비 이야기 채비에 온 특별한 손님들
메멘토모리 어머니,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채비학교 [마음치유 프로그램] 상실에서 삶으로
채비특강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노인 한 분을 돌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가 '웰다잉'이라 말할 때, 그것은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늙어가고, 병을 앓고, 죽음에 이르는 전과정을 이르는 것이다. 노년기에 접어들어 죽기까지 과정이라 말할 수도 있다.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쉽지 않다. 인생을 '고해(苦海)'라고 하는 이유다.

천수를 누리다 잠자다 죽는 것이 모든 이의 로망이지만 그런 행운을 누리는 이는 많지 않다. 암이나 중증 질병으로 사망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중증 환자란 스스로 돌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부터 간병이 필요하다.

간병은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돌보고 시중드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도리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 대상이 중증 환자라면 더 어렵다. 스물네 시간 환자 곁에서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음식 공급, 약물 복용, 대소변 처리, 목욕, 옷 갈아입히기, 청소, 장보기, 요리…. 끝도 없는 고단한 노동에 지쳐 결국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중증 환자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의 노동과 비슷하다. 수고로움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으며, 환자가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나빠지기 일쑤기 때문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노동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가혹하다. 자식이거나 부모여서, 선의로, 의무감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기 싫어 시작한 전쟁이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오로지 가족이 감당하며 지쳐 쓰러질 때까지 버텨야 한다.

이 전쟁은 결국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난다. 환자든, 가족이든. 그래서 전쟁인 것이다. 이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생업을 포기하거나 병원비를 감당 못해 빚더미에 앉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극단적인 경우 동반자살 하거나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사례도 심심찮게 보고되고 있다.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비참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핵가족화'라는 새로운 시대 환경 앞에 서 있다. 초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가져올 사회 변화는 상상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주목할 지점이 간병이다. 간병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 전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는 모른 척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손을 쓰지 않는다면 언젠가 커다란 쓰나미로 돌아올 것이다.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별고 곱지 않은 것 같다. 나이 들어 노동력을 잃고 거동이 불편해진 이들을 잉여인간이나 피부양자로만 본다. 그들의 눈에 노인은 세금이나 축내고 의료비만 가중하는 쓸모없는 존재이자 짐이다. '노혐(老嫌)' 현상은 아직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강제윤 시인은 어머니를 간병하며 적은 글에서 지적했다. "우리의 부모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도 스스로 이룩한 사회적 · 개인적 자산을 아주 조금 쓰다 가는 것뿐이다. 결국 대다수는 세상에 물려주고 간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더 당당히 요구하고 누리다 갈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해드릴 의무가 있다. 병들고 약해진 부모님은 결코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우리는 앞선 세대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고 그들이 지어 올린 성채에서 안락을 누리며 살고 있다. 우리 부모 세대도 그 앞의 세대 덕에 살아왔다. 노인에게 손가락질 하고 비난하는 이들도 머지않아 노인이 된다.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노인은 청년의 미래이고 과거의 청년이다. 노인과 청년이 서로의 무게를 감당하며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이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채우고 비우고'는 삶과 죽음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임종 전 나흘, 아름다운 이별 방법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당한다. 가족이 오래 병을 앓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해도 죽음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잠든 새, 간병 중, 짧은 순간에 닥친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아득한 단절감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후, 우리는 장례식이라는 열차에 올라탄다. 별일 없다면 대개 3일 동안. 정신없이 달려야 한다. 그동안 정신을 차려야 고인과 제대로 이별하고 충분히 애도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알아보자.

임종 전. 미리 사전상담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가족이 장례 전 과정을 소상히 알고 직접 실행할 것이 아니라면 전문 장례지도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생전에 상조회사를 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고, 이력을 통해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 곳이 좋다. 사전상담을 통해 매장이나 화장 여부, 그에 따른 봉안당이나 장지, 전국 장례식장 현황과 사용료, 조문객 식음료대, 제단 꽃장식, 제사음식 등을 알아보고 정해야 한다.

1일차. 의료기관 내 임종시는 병원 원무과에서 사망진단서를 7부 정도 발급받는다. 자택 임종 시에는 지체 없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검사지휘서를 수령해야 한다. 장례업체 콜센터에 연락해 안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조치 후 장례지도사와 상담을 통해 장례시장을 정하고 운구차량으로 고인을 이송한다. 화장, 매장 등 장법에 따라 장지를 결정하는데, 화장 시 화장예약을, 매장 시 장지예약을 한다. 그후 장례일정(입관 및 발인시간 등)을 정하고 견적을 확인한다. 또 빈소에 차질 영정사진, 제단, 제사상 등을 결정하고 가족, 친지, 지인에게 부고문자를 발송한다.

2일차. 장례지도사와 장례관리사(도우미)와 협의해 음식을 정한 후 조문객을 맞이한다. 입관식은 고인의 몸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수의를 입힌 후 관에 모시는 절차이다. 입관실에서 진행되며 보통 1시간 정도 걸린다.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입관식이 끝나면 제사를 지낸다. 종교의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차량, 운구인원, 발인제 지낼 장소 등 장지로 이동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3일차. 발인 전 장례식장 비용을 정산한다. 미사용 물품은 반납하고 상조회사 비용도 정산한다. 개인물품을 챙기고 빈소를 정돈하며 개인 짐을 정리한다. 발인은 장례식장에서 장지로 떠나는 과정이다. 발인 전 제사상을 차려 추모의식을 갖는다. 종교마다 발인식과 함께 종교 예식을 진행하거나 영결식장으로 이동해 별도로 진행하기도 한다. 발인식을 마치면 관을 운구하여 장의차량에 모신다. 유족의 규모에 따라 버스와 리무진을 다 쓰거나 버스 혹은 리무진만 쓸 수도 있다. 장지에 따라 화장장 또는 묘소로 이동한다.

화장하는 경우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화장장에 도착하여 접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각 1부씩 준비한다. 화장이 시작되면 유족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소요시간은 1시간30분 정도인데 이때 종교별 추모의식을 지내기도 한다.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한지로 감싸 준비한 유골함에 모신다. 그후 유골 안치를 위해 이동한다. 안치방법은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수목장 잔디장, 해양장 등이 있다.

매장하는 경우 관을 장지로 운구한다. 공원묘지 등을 이용할 경우 서류 접수 후 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정해진 묘역으로 이동해 미리 파 놓은 묘지 광중(구덩이)에 관을 모신다. 광중과 관 사이를 흙으로 채워 평지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그후 흙은 쌓아 봉분을 만든다. 평토제, 성분제 같은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봉분 조성 후 종교별로 성분제 또는 추모의식을 진행한다. 매장의 경우 봉문묘, 평장묘, 문증묘, 공원묘원 등에 고인을 모신다.

장례 후. 자택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초우제, 재우제, 삼우제를 치른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다. 개인묘를 설치할 경우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해야 한다. 가족묘, 문중묘, 법인묘는 설치 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민원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문록이나 SNS 등을 확인하고 조문이나 위로를 전한 분들에게 답례 문자를 발송하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한다. 경우에 따라 전문청소업체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3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한다. 장례와 행정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고인에 대한 기억이나 흔적조차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마음 속에 있다. 사랑의 기억은 남기고 나쁜 기억은 털어버린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한자락일 뿐이다.

슬픔을 살아갈 힘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남은 이의 몫이다.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알쓸신장'은 '알아두면 쓸데 있고 새로운 장례 이야기'입니다.
장례 상식 및 다채로운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채비에 온 특별한 손님들

10월 27일과 11월 4일,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충무로 공간채비 메인홀에서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이라는 역설적인 주제로 기획특강을 진행했다.

첫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진해 교수님이 '말끝이 당신이다.' 라는 주제로 일터에서 언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말의 감수성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함께 성찰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민주주의는 가치와 제도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우리라는 관계안에서 말이 중요하다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둘째날에는 중앙대학교 독문학과 김누리교수님이 공간채비에 오셨다. 노동환경에서 민주주의자는 어떻게 길러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 사람답게 사는 일을 어렵게 하는 문화, 사회, 경제 이야기를 해주었다.

평소 매스컴을 통해 만났던 김진행, 김누리 교수님을 공간채비에서 직접 만나니 반가웠다. 두 분의 뜻 깊은 강의는 유익했고 도움이 되었다.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 꼭 찾아 들어보시길 권한다.

공간채비에는 특별한 손님이 많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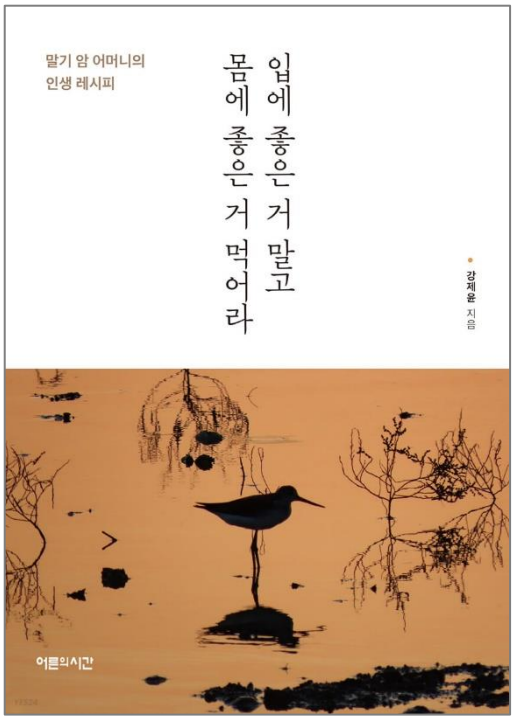
11월 3일과 4일에 제주 애월고등학교 친구들이 서울로 진로체험 활동을 왔다. 학생들은 충무로 공간채비에서 강연을 듣고 공부했다.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라 관련 분야 디자인 전문가를 초청해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아마 공간채비에 방문한 가장 젊은 손님이었던 것 같다.

이들은들어오고, 나가고, 쉬는 시간에 춤추고,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놀았다. 공간채비에서 추모식을 색다르게 진행하고는 했지만 청소년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생기가 넘쳤다. 충만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됐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채비에서 즐겁게, 편안하게, 뜻있게 지내다 가면 좋겠다.

11월 7일에는 강동노인복지관에서 왔다. 웰다잉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공간채비를 찾았다고 했다. 탁 트인 테라스와 멋있는 시계를 보고 다들 '어~ 멋지네'라고 했다. 좀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좋은 죽음 준비에 대해 이야기 나누니 신기했다. 어떻게 채비를 알았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간 채비를 알고 있을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지만 그 인연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맺어지는지 자세히 모른다. 다만 오늘 찾아오는 다양한 이들이 있어 설레고 행복할 뿐이다. 더 많은 이들이 찾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전승욱 | 공간채비 매니저,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어머니,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입에 좋은 거 말고 몸에 좋은 거 먹어라

강제윤 | 어른의시간

이 책은 강제윤 시인이 3년 동안 페이스북에 어머니의 발병부터 치료 과정을 일기 쓰듯 꾸준히 올린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야기를 읽은 많은 사람의 응원과 조언, 그리고 다양한 도움 덕분에 그는 어머니를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었다.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시시포스의 노동과 비슷하다. 수고로움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으며, 환자가 회복되는 듯하다가도 또다시 나빠지기 일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은 이 모든 과정에 감사했다. 간병의 수고로움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 더 좋았고, 그 시간을 통해 어머니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이고, 제철 과일을 갈아 주스를 만들고, 기저귀를 갈아드리며 모자간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어머니는 자신을 돌보는 아들에게 황태국? 굴뭇국 끓이는 법, 동치미와 열무김치 담그는 법, 고추장 담그는 법 등 요리법을 전수해주었고, 인생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저자가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나이 들어 노동력을 잃고 거동이 불편해진 부모님들은 결코 잉여인간이나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부모님들이 만든 세상에 살고 있고 그분들이 지어 올린 성채에서 안락을 누리고 살면서도 그 고마움을 모른 채 살아간다. 그뿐 아니라 연로해진 부모 세대를 짐스러워한다. 우리의 부모는 피부양자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것도 스스로 이룩한 사회적 · 개인적 자산을 아주 조금 쓰다 가는 것뿐이다. 결국 대다수는 세상에 물려주고 가신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더 당당히 요구하고 누리다 가실 권리가 있으며,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해드릴 의무가 있다. 병들고 약해진 부모님은 결코 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게'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한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르신 한 분을 돌보는 데도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컨텐츠를 소개합니다

[마음치유 프로그램] 상실에서 삶으로

인생에서 죽음과 상실을 피할 수 없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애도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삶의 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애도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픈 기억과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며 스스로 그리고 함께 우리의 삶을 다독이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애도 작업에 관심 있으신 조합원분들을 초대합니다.

■ 개요

- 교육내용: 상실을 나누고 애도하기
- 대상: 조합원중 장례를 치른 분. 이별이나 상실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고 싶은 분. 애도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
- 일정: 2022년 12월 21일(수)/ 12월 28(수) 오후4~6시(총 2강)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5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참가 비용: 조합원 무료, 비조합원 만원
- 신청 링크: https://forms.gle/ArCNfzTA6kzwjcvj7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주제	내용	강의 날짜
제1강 기억과 감정 만나기	- 들어가는 명상 - 애도에 대하여 : 간략한 소개 - 나의 애도 이슈: 참여동기와 경험 나누기 - 희로애락 이야기: 고인과의 관계와 감정, 그리운 것과 그립지 않은 것 - 짧은 명상: 신체화 감각 다루기	12월 21일(수) 4시~6시
제2강 감정 돌보기	- 마음 여는 명상 - 감정에 대하여: 간략한 소개 - 의식의 공간 경험하기 :애도 감정을 만나고 흐름에 맡기기 - 새로운 관계 발견하기: 편지 쓰기, '고인과 나' 다시 소개하기 - 짧은 명상: 마무리	12월 28일(수) 4시~6시

■ 강사소개

김은자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공부했고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에서 일했다. 10대때 가족들을 잃으면서 겪은 상실감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공부 중 가족세우기 전문과정 중 촉진자 교육과정 및 개인세션 고육과정을 이수했고 함께하는 애도 작업을 시작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와 '자연에 대한 존중' 등을 번역했다.

[채비 특강]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한 사람의 삶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갈등 구조의 드라마며 이야기를 통해 잘 알지 못했던 그의 삶 어떤 부분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애도는 살아있는 우리가 떠난 그의 삶을 이야기하며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파악하며 삶의 태도를 엿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요?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을까요? 혹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지 어떤 태도로 바라보아야 할지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강좌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교육내용: 그림책을 함께 읽고 삶과 죽음에 대해 건강한 사생관과 자신만의 철학을 갖기
- 대상: 삶과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사별로 힘들어 하시는 분, 나만의 사생관과 건강한 애도, 상실과 치유에 관심이 있는 분 등
- 일정: 2023년 1월 13(금) 오후 4시~6시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20명 이내 (선착순 마감)
- 참가 비용: 무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yJZ2h2NpC9SszZde6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1.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회의 중요성
2. 죽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의 중요성
3. 죽음을 거부하는 삶
 -그림책 「사과나무 위의 죽음」 함께 읽기
 -등장 인물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생각 나누기
 -바람직한 사생관에 대한 생각 나누기
4.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
 -그림책 「설탕 한 컵」 함께 읽기
 -등장 인물의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살펴보기
 -건강한 애도에 대한 바람직한 견해 나누기

■ 강사
임경희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아이들과 만나며 그림책으로 죽음에 관한 생각을 나누었다.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노숙인 인문대학, 교사 연수, 웰다잉 지도자 양성 교육, 강원대학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화교육 등에서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강의를 진행했다. 저서로는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당신은 가고 나는 여기』와 『삶의 성찰 - 죽음에게 묻다』등이 있다.

‘채비플랜 + 채비하다’ 강좌 후기

지난 11/24, 12/1에 ‘채비플랜+채비하다’ 강좌가 공간채비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전제작한 채비함을 사용하는 첫 강의여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10여명의 조합원들은 채비노트 사용방법, 채비함 사용방법, 추모영상 준비, 추모장례 준비하기 등의 시간을 통해 그리움은 채우고 삶은 비우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강의 후기 중 일부를 옮깁니다

“채비 완전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좋았으며, 강사님들의 성의 있는 준비와 답변도 아주 만족합니다”

“죽음에 대한 터부를 없애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나눌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출력된 자료 주시니까 필기하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울조합] 12월 신입조합원 교육 안내

협동조합으로서의 우리조합 이해하기

우리 조합에 가입한 신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협동조합 교육입니다.
격달에 한 번 진행하며 신입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 교육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내용: 협동조합과 우리조합의 의미, 채비장례의 필요성, 우리조합의 역사, 미션, 방향과 가치 등
- 강사: 김경환 서울한겨레두레협동 상임이사
- 일시: 2022년 12월 14일(수) 오후 4시~ 5시30분 (1시간 30분)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신청: https://forms.gle/3m5mSVA79MrPpH6m7
- 교육 문의: 722-9517

채비장례서비스 광고 3종 제작

채비장례서비스 지면광고용 3종을 제작했습니다.

추모장례 에피소드로 장례의 본질 상기, 상표계의 정신을 담은 협동조합 강조, 약속과 신뢰의 상조서비스 컨셉으로 각각 제작했습니다.

잡지 지면광고 및 상품서비스 홍보페이지, 사회적경제연대진영 포스터 등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이며, 조합원분들께서도 주위에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 및 다운로드〉

2022년 11월

정규호 조합원 부친상
곽영권 조합원 모친상
최은선 조합원 부친상
양광용 조합원 모친상
김영훈 조합원 모친상
왕영술 조합원 지인상
정영훈 조합원 모친상
권대영 조합원 모친상
오현재 조합원 모친상
방대수 조합원 친척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정은주 조합원 시부상
정명희 조합원 모친상
김의순 조합원 본인상
권종탁 조합원 장인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장재필 조합원 모친상
최남주 조합원 시부상
김동후 조합원 부친상
차성호 조합원 지인상
장양미 조합원 부친상

2022년 10월

윤형근 조합원 빙모상
조동희 조합원 부친상
박종서 조합원 모친상
서화경 조합원 시모상
허상채 조합원 모친상
이창환 조합원 지인상
황원섭 조합원 부친상
김경희 조합원 모친상
이순식 조합원 부친상
윤석위 조합원 지인상
황현실 조합원 배우자상
이현철 조합원 부친상
박상일 조합원 모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김유진 조합원 부친상
이청순 조합원 배우자상
박은진 조합원 시부상

2022년 9월

배현지 조합원 시모상
이윤수 조합원 시조모상
정귀례 조합원 부친상
임정은 조합원 시모상
채규조 조합원 모친상
이지영 조합원 부친상
김진희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이수현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통일운동가 정용일 민주사회장
김선광 조합원 모친상
정윤희 조합원 부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채비

협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장례문화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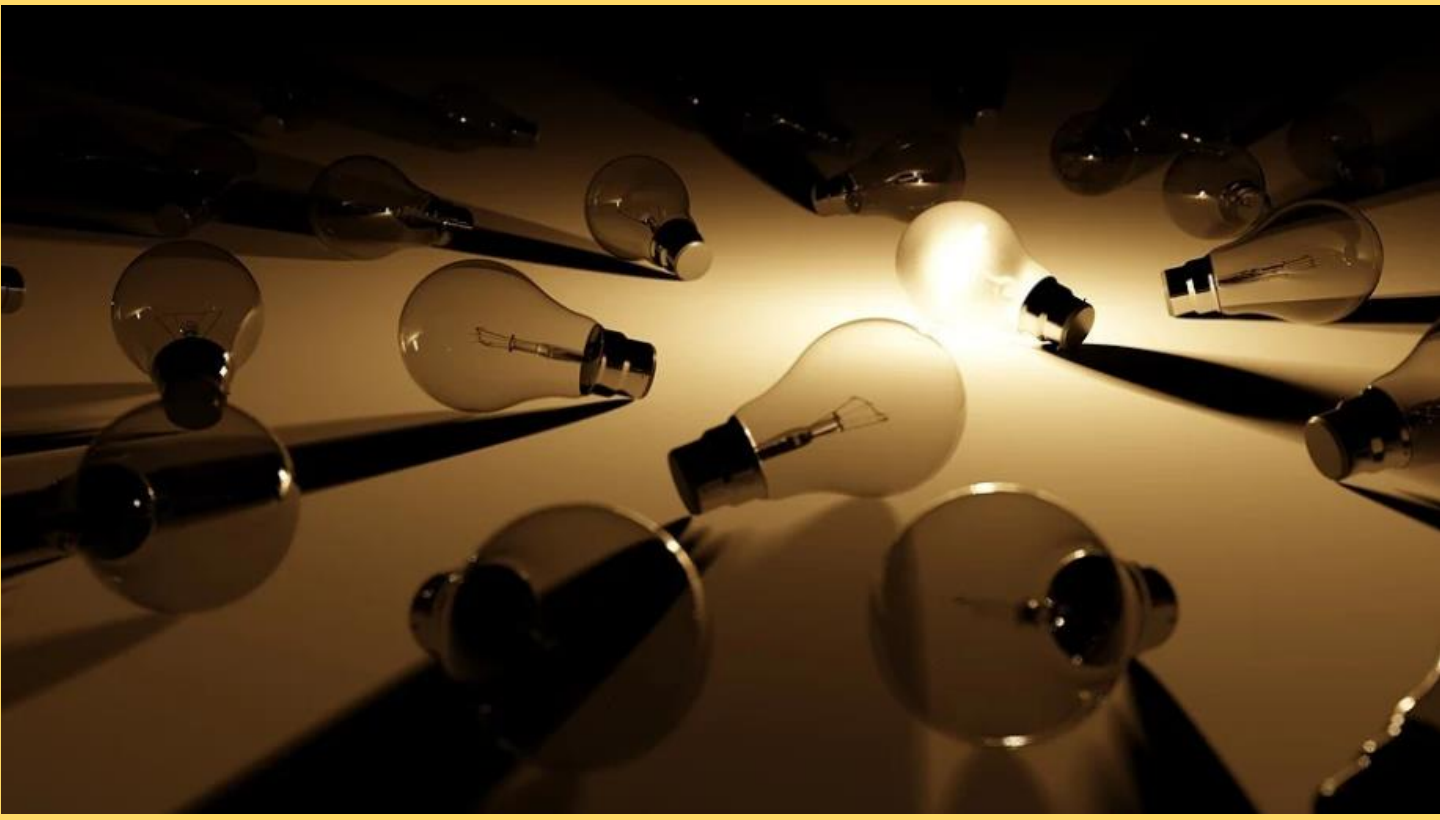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GK7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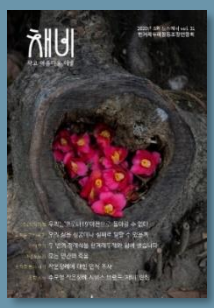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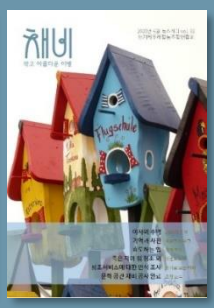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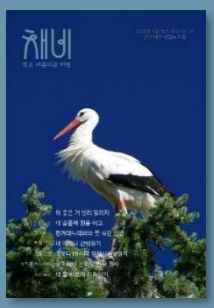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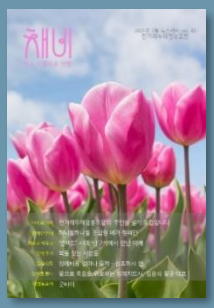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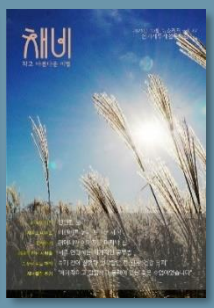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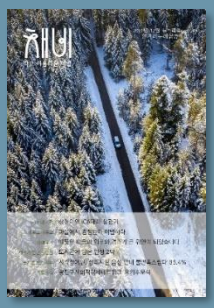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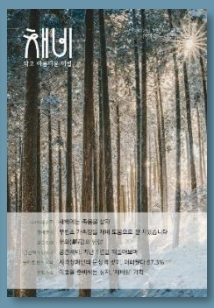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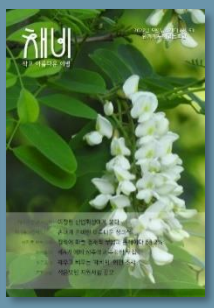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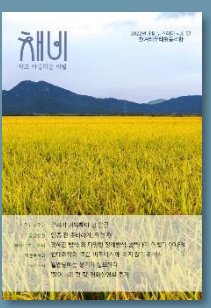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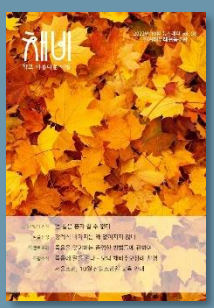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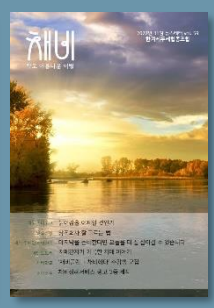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